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교회 광고
 - 주일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 수요일예배와 토요 새벽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 교회 현장예배에 참여하실 때 발열 체크를 하신 후에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주일 안내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개인별로 감사의 제목들을 추수감사 헌금봉투에 적어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1부	주일 2부	친 교	안 내
11/15		배한우		
11/22	안영남	김유신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30분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고난과 믿음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9절

- 기도제목: 1.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고난과 시험 속에서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3. 힘들었던 만큼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어가는 2020년도가 되게 하소서.

들어가는 말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백신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 믿음이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제나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2. 믿음은 영원한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은 영원히 지속이 되는가?입니다. 자동적으로? 어찌까지는 내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가?입니다.

3.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날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나요? 내 속에 고난의 문제가 찾아 왔을 때,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혔을 때,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그 때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크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과 시험이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고난 중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난과 시험을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말

올 해 2020년을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고통스러워 했던 해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요즘 흑역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군가에게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빠고 짙은 시간들을 흑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올 2020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흑역사의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 yourselves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흑역사로 기록될 2020년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흑역사로만 기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단 올해를 잘 넘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위기를 넘어가는데 백신 돈 그리고 믿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힘들었던 2020년도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크게 자란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일예배		수요예배(8시PM)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여호수아서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 송영 Invocation	사회자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46번(요14장)	
찬 송 Hymn	217장	
기 도(Prayer)	1부: 배인순 권사 2부: 배한우 장로	
성 경 Scripture	베드로전서 1장 3~9절	
설 교 Message	고난과 믿음	
▲ 헌 금 Offering		빌립보서 강해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이번 주 말씀 정요한 목사
▲ 찬 송 Hymn	364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토요새벽기도회

교회 후원 선교사

김덕래, 김홍덕, 정철웅, 이상진,

교회 지원 단체

뉴욕 밀알선교단, 뉴욕 농아인 교회, 주님의 식탁
한밀교회(한국)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Tel : (929) 225-0656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